

올 여름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 1221만 명

- 전년대비 13.2% 감소...물놀이 안전사고 ZERO 달성 등 성과

충남도는 올 여름철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122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9월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관광객 감소가 컸던 이유로는 피서객 방문이 가장 많은 8월초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이른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4계절 캠핑 중심으로 휴가패턴이 변화한 점도 피서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올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소폭 감소했으나, 도내 물놀이 안전사고 ZERO 목표를 달성한 점은 특기할 만한 성과로 기록됐다.

도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서, 소방서, 적십자인명구조대, 해양구조협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운영한 안전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관리통합지원센터는 총 3만 5801명의 인력을 투입해 순찰강화 등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및 긴급구조 활동을 주야로 전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재정비 사업을 해수욕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 대비 농업직불금 제도 손본다

- 1일 제도개선 토론회...쌀 관세화 대비 전문가 의견 수렴

충남도는 9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직불금 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허승욱 도 정부부지사 주재로 자유토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어촌을 위해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총발원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연구 결과 발표에서 강미야 총발원 연구원은 생산과 연계해 품목별로 지원하던 현재의 직불금을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1축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계인력육성을 위한 젊은 농부 프로그램인 희망농업 직불금 ▲2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보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경관직불금이다.

이어 ▲3축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공동체와 농촌안전망 프로그램인 행복농촌직불금으로, 현재의 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심포지엄·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농업직불금 제

도 개선에 관한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가 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제안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수도권 유망기업 3개사 내포신도시 유치

- 7개 기업과 MOU...5개 기업은 '수도권 이전 기업'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를 뚫고 수도권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한꺼번에 유치했다.

이 중 3개 기업은 내포신도시에 새 터를 잡을 계획으로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희정 지사는 8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아테크(주) 등 7개 기업 대표, 김석환 홍성군수 등 4개 시군 시장·군수 등과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한아테크와 화이브엠텍(주), 한양로보틱스(주) 등 3개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로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둠자를 튼다.

우선 LED조명기구 생산업체인 한아테크는 오는 2016년 12월까지 125억 원을 투자,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내 1만 6500㎡의 부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 설립한다.

역시 LED조명기구 생산업체인 화이브엠텍도 2016년 12월까지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내 1만 6500㎡의 부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 설립키로 하고 모두 125억 원을 투자한다.

한양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로 2016년 12월까지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내 9917㎡의 부지에 51억 원을 투자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한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모두 352명이며 이 중 225명은 신규 인력으로,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기업 유치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 들어설 기업은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우수AMS(주)를 포함해 모두 4개로 늘어났으며, 내포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대지화학은 125억 원을 투자해 예산군 삼교읍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2만 4061㎡의 부지에 내년 9월까지 본사 및 공장을 이전, 설립한다.

수도권 내 기업인 대지화학은 원료 의약품 중간체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또 와이아이케이(주)는 2016년 12월까지 156억 원을 투자해 아산시 둔포면 아산제2테크노밸리 내 1만 1140㎡에 공장을 이전하고, JSPV(주)는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만 8369㎡에 내년 12월까지 33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세운다.

와이아이케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 생산 업체이며, JSPV는 태양광모듈을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반도체용 식각액과 박리액 등을 생산하는 램테크놀러지(주)는 2017년 12월까지 772억 원을 투입, 공주시 탄천면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6만 1805㎡ 부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

이번 MOU에서 각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도 약속했다.

도는 이들 7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앞으로 3년간 도내에서 2250억 원의 생산유발과 162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3008억 원의 생산액과 834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 대표 맛집 정보’ 한 권에 다 있다

- 특색 음식점 176곳 선정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발간

충남도가 도내 대표 맛집 정보를 추려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충남도는 8월 11일 도내 특색 음식점 정보를 담은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를 발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음식의 맛과 질, 시설, 실내·외 환경, 외국인 접객 능력, 주변 관광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서 선정한 176개 음식점의 정보를 담았다.

수록 내용은 음식점 내·외부 사진과 메뉴, 약도, 주차시설, 관광명소, 전화번호 등이며,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함께 표기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이외에도 외국인 편의음식점 78곳, 모범음식점 906곳의 업소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주메뉴 등을 부록형태로 제공해 도를 찾는 관광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자를 활용해 도내에서 열리는 프란시스

코 교황 환영객 및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충남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세계 속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 책자를 전국 시·도 관광·식품 부서와 행정기관 민원실, 공기업, 관광안내소, 외국인 관련 단체, 위생단체 등에 배부해 활용토록 하고,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김현규 도 복지보전국장은 “충남은 가는 곳마다 특색 있는 음식으로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이번 맛집 책자 발간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충남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각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동마을 주형로 대표 초청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9월 1일 홍동마을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주형로 공동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신바람나는 농업농촌”을 주제로 그간 홍동마을의 변화와 발전 모습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제시해주었다.

지난 36년간 농약을 손에 안물히고 쌀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 대표의 말에서 친환경유기농법의 핵심적인 단면을 보았다. “농업농촌이 다시 살아갈 길은 바로 ‘협동’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90년간의 유쾌한 특강은 마무리되었다.